



그룹 2am

임창정·그룹 2am '발라드 장인' 귀환

임창정, 다음달 정규 17집 '귀 녹여드리겠다' 7년만에 완전체 그룹 2am, 새 미니음반 출시



임창정

'발라드 장인'들이 돌아온다. 뛰어난 음색으로 '명품 보컬'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임창정, 그룹 2am, 다비치 등이 발라드곡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물들인다.

매년 가을 새 앨범을 발표해온 임창정이 11월1일 정규 17집으로 팬들과 만난다. 21일 소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는 "귀를 아주 녹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타이틀곡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뮤직비디오는 그를 비롯해 배우 황정민, 하지원, 고정표, 경수진 등이 출연해 한편의 영화처럼 꾸몄다.

7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2am(조권·이창민·임슬옹·정진운)도 임창정과 같은 날 새 미니음반 '발라드(Ballad) 21 F/W'를 선보인다. 앨범 제목에서부터 발라드를 전면에 내세운다. 2008년 '이 노래'로 데뷔해 '죽어도 못 보내' '전할 받지 않는 너에게' 등으로 사랑받아온 이들은 오랜만에 복귀하며 발라드곡으로 뽐뿌를 채웠다. 특히 데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인연으로 방시혁 총괄프로듀서의 곡도 앨범에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듀오 다비치(이해리·강민경)와 채연도 최근 팬들을 만나고 있다. 다비치는 디지털 싱글 '나의 첫사랑'으로 가을처럼 짙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추억한다. 댄스곡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채연은 정통 발라드곡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를 발표하고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날 시험한 작품…모든 액션 이 악물고 해냈죠”

생애 첫 액션, 부상 달고 살아 '잘 싸우네' 칭찬 너무 기뻐요 해외팬들 관심…민기지 않아 또 다른 도전 해보고 싶어요



“마음이 ‘붕’ 떠서 ‘일상생활 불가’ 상태예요.”

연기자 한소희(이소희·27)는 요즘 “민기지 않는 일들만 생긴다”며 열렬히 해했다. 그럴 만도 하다. 주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으로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 네임'은 21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럴의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3위에 오르는 등 해외 이용자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는 차세대 톱스타로 손꼽혀왔다. 2017년 SBS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해 JTBC '부부의 세계' '알고 있지만' 등을 통해 청춘스타로 발돋움했다. 화려한 외모와 톡톡 튀는 개성이 전지현을 닮아 '포스트 전지현'이란 수식어도 얻었다. 정작 그는 입을 '찍' 벌린 채 “호어! 말도 안 돼!”라며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여성 주인공의 누아르, 신선하죠?”

한소희는 '마이 네임'에서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마약 조직원이 됐다 경찰에 잠입하는 윤지우를 연기했다. 경찰과 조직폭력배의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이를 이끄는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라는 점만으로도 새롭다. 한소희가 꼽은 “'마이 네임'의 강점”이기도 하다.

“해외의 관심은 신기해요. '오징어게임'이 계기가 돼 한국드라마가 조명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여성 주인공이 그려내는 언더커버(위장 잠입) 소재의 액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총과 칼을 손에 쥐고 조직원들을 쓰러뜨리는 캐릭터를 연기하기는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 까지고, 손이 베이는 자잘한 부상을 달고 살았다”



면서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자리로 여기고 모든 액션 장면을 소화했다”고 돌아섰다.

“몸무게를 10kg 늘리고, 열심히 액션 스킨 다니며 몸을 만들었어요. 원래 운동의 '운'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맨스나 멜로 장르를 하다 이렇게 거친 액션에 도전한 건 처음이에요. 자신의 신념만으로 목표에 도달하고 마는 강한 인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주변 반응이요? 다들 '잘 싸우네!'라고 칭찬해 주던 걸요. 하하하!”

●“내 외모는 '빈껍데기'일 뿐”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안보현과 '19금' 연기도 펼쳤다. 전작 '부부의 세계', '알고 있지만'에 이은 세 번째 '19금' 연기자지만 개의치 않았다. 다만 '한창 촬영을 하던 중 (베드신에 대한)이야기를 전달 받아 극에 몰입이 잘 될지 걱정을 했었다.

또 대부분을 민낯으로 촬영했다.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외모는 사실 빈껍데기일 뿐이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연기자라는 막대한 무게의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스스로 자주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예쁘게'만 하는 건 아님을 깨달아요. 연기로, 제 블로그에 담아내는 조각글로, 팬들과 소통으로 꾸미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조금 예쁘지 않을지언정, 그게 '진짜' 지인 걸요.”

한소희는 “나의 다음을 기대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설렌다”며 웃었다. “액션을 해내고 나니 색다른 장르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서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착하고 그렇지 않고요. 칭찬도, 재밌는 일도 다 환영해요. 연기를 쉽게 보지 않고 마음 단단히 먹어 선택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주연 한소희가 거친 액션연기로 국내외 시선을 모으고 있다. 차세대 톱스타 자리를 일찌감치 예약했던 재능을 재확인시킨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내 몸의 균형을! 엄청 편한 워킹 밸런스화



발의 형태교정 깔창특허 • 약취 제거 깔창 • 미끄럼방지 밑창



체형 개선까지!



평발관리



족저근막관리



무지외반증 관리



발목뒤틀림 관리



4cm의 키높이 뒷굽

신고 벗기 편한 벨크로스

(남성용)

모델명 : B-02 (브라운)

100% 국내산,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약취발생 방지 강력한 미끄럼방지 철판무창, 가볍고 편안한 안락함



(여성용)

모델명 : B-05 (와인)

신발이 불편하면 보행도 불편해진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밸런스화가 출시되었다. 오솔라이트 깔창을 접목하여 약취와 땀이 차는 것을 막아주며, 특허받은 밸런스 인솔은 무지외반증 관리 및 족저근막염과 발목 뒤틀림 방지, 평발로 보행이 불편하신분, 관절이 좋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신분께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천연소가죽 외피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접목시켜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행으로 착화감이 우수하며 신고 벗기 편한 벨크로 방식으로 기존의 효도하나 렌드로바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최상의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폴로 밸런스화는 특히 연세가 많아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는 어르신들께 매우 효과적이며 발 볼이 넓어서 평변족(pesplanus)과 요족(pes cavus)과 같이 발의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다양한 경우에도 불안정한 자세를 똑똑하게 잡아주는 기능성 슈즈이다.

다양한 야외 활동을 편안하게 해결해주는 다용도 기능성 슈즈로 무릎과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효도화로 최적이다. 100% 국내제작에 무상 A/S 6개월 보장과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을 해드리며 남성용은 245mm 부터 5mm 단위로 285mm 까지 있고 색상은 검정, 브라운이 있으며, 여성용은 230mm 부터 5mm 단위로 255mm 까지 있고 색상은 검정, 와인이 있다. 구입 및 문의 전화는 1566-1788 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진수테크쇼핑” 을 검색하시거나, www.j1234.co.kr 로 들어가시면 더욱 더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구매가 가능하다 한다.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기준가 : 198,000원 파격가 : 79,000원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

(택배비 무료배송)

NAVER 진수테크쇼핑 검색

인터넷, 모바일 구입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 일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566-1788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